

시론

새해에는 전두업을 건강하게 하자



김영식 남부대 교수·웃음명사전문가

2025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가 밝았다. 새해 첫날 새벽 구름이 끼어 해를 일찍 보지는 못했지만, 동해 앞산에 동글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새해 소원을 빌었다. 작년 연말과 새해의 사회 분위기가 다르지는 않지만,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소중한 가치를 새삼 느끼는 단어가 되었다. 희망만 있어도 우리는 살아갈 이유와 의미를 갖는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곁을 떠나간 소중한 인연들의 영혼을 위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다.

2024년에는 12·3비상계엄, 의대 정원 갈등, 항공기 참사, 딥페이크 성범죄, 티메프 미정산 사태, 국내 정치의 갈등,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긴장 등 크고 작은 뉴스들 속에서 우리가 간파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국민들의 행복과 웃음 지수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행복감과 웃음을 느끼는 감정영역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이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유튜브에 자신의 뇌를 맡기고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지 않는 현상 그리고 광고로 인한 돈벌이에 급급한 유튜브들의 저급한 내용들이 진실 인양 믿고 자신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나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소식은 독서가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줘야 한다. 치매,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있는 정신 질환의 폭발적 증가 현상들은 전두엽의 작용과 매우 밀접하다.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중독(한국인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3분의 1이 유튜브 시청 시간)은 정신활동의 핵심인 뇌의 전두엽 기능을 위축시킨다. 한국인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하루 평균 210분이나 되는데, 이는 세계 평균 166분보다 무려 25% 높은 수치다. 유튜브 중독에 따른 전두엽의 위축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낳는다.

첫째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사고 능력이 퇴화된다. 둘째는 분노와 불안, 우울 등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퇴화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의 성패는 국가의 주체인 국민들의 덕성과 품성에 따라 좌우된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온라인 정보에 탐닉하는 사람들일수록 전두엽은 약화한다고 학자들은 경고한다. 스마트폰 중독자들은 정신없이 쏟아지는 온라인 정보로 인해 뇌에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 그에 따라 온라인에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자극적인 내용을 찾는 뇌의 뉴런은 활성화되지만, 속고 및 사색하고 하나의 문제에 집중하는 전두엽의 뉴런들은 활력을 잃게 된다. 결국 한국 스마트폰과 유튜브에 빠진 뇌는 피상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점차 총동적으로 변해간다.

노년학 전문가들도 유튜브의 과도한 사용이 고령 세대의 전두엽 활동을 약화시킨다고 경고하고 있다. 숏츠(짧은 영상) 등의 자극적 영상은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의 급격한 분비를 가져온다. 하지만 도파민이 늘었

다 줄어드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쌓이는 스트레스가 전두엽의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인들 모임에서도 유튜브에서 접한 단편적 내용을 주창하다가 호응을 얻지 못하면 갑자기 화를 내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면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유튜브나 SNS 같은 매체들로부터 뇌를 보호하고 문제 해결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동안 이런저런 방안들이 제시됐다. 일주일에 하루와 휴가 때 스마트폰 끄기 등이 제시됐다.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갓난아이를 정성으로 키우는 부모들의 태도에서 실마리를 찾아보자.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 영상에 노출된 아기들의 경우 두뇌 발달이 더디고, 타인과의 정서 교감이 뒤처지고, 과잉행동 장애 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자주 눈을 마주치고 말을 걸어주는 양육자들과 자란 아이들이 안정된 정서와 교감 능력, 즉 전두엽이 고루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2025년 건강한 사회로의 소통과 감성 회복을 위해 호기심 가득한 어린아이처럼 상대방에게 귀 기울이는 연습(경청)을 해보자. 더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는 습관을 길러보자. 충동적인 폭력에 저항하고 온정의 실천으로 분노가 됐던 마하트라 간디와 넬슨 만델라의 표정이 어린아이들 같았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엄마의 정성 어린 경청과 보살핌을 받은 어린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기억하자. 우리 사회의 건강은 국민의 전두엽 건강에 달려 있다. 새해에는 가끔 스마트폰을 끄고 경청, 인정, 웃음을 가까이하자. 전두엽의 기능이 살아나야만 우리 사회가 좀 더 아름다운 선진 사회로 나갈 수 있다.

社說

의대 정원 증원과 별개 사안 전남권 신설 차질없어야

불확실한 정국 상황에서도 2026학년도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정부 방침이 달라져선 안 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국립 목포대와 순천대는 대학 통합과 의대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권 의대 신설은 지난해 3월 민생토론회와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약속한 사항이지만 12·3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탄핵 소추,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더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정갈등을 돌파하고자 대화를 모색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최대행이 지난주 주재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때문이다. 전남도가 바짝 긴장할 수 밖에 없다.

작년 2월 전공의 집단 이탈로 국민 불평이 가중되고 의사들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다. 2025년 도 입시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내년 정원 확정을 앞둔 가운데, 모두 출구 전략이 필요한 만큼 돌

파구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 복귀를 종용하는 '면과용'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정부의 사과를 계기로 대화 테이블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30년 숙원 사업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전남도는 의대 신설 명분과 필요성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목포대와 순천대도 3월 교육부에서 의대 정원을 배정받고 4월 대학 통합 승인까지 받겠다는 구상으로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도민과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 통합을 위한 준비를 순탄하게 진행해왔다.

최대 현안이다. 현 정부의 약속이다. 특히 기존 의대 정원 증원이 아닌 신설 몫으로 별개 사안이라는 점에서 명분을 갖는다. 정부 요구대로 의대 설립 대학 추천, '1도 1국립대' 정책에 맞는 대학 통합 합의 등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했다. 당초 계획에 따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의료계도 지역으로 완결체계 차원에서 대응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전남도는 두 대학과 함께 실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기억해야 한다는 화정아이파크 참사 3주기 메시지

광주 화정아이파크 3주기 추모식이 엄수됐다. 유가족들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안전성 확보와 재발 방지를 요청했으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2022년 1월 11일, 도심에서 신축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붕괴돼 근로자 6명이 숨진 사고였다. 이후 8개 동 전체 주거 부분 철거가 완료됐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재시공이 진행 중이다. 아이파크라는 이름도 지우고 '센테니얼'이라 불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작·간접적 책임 규명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음 주 초에야 재판에 넘겨진 법인 3곳(현산·(주)가건건설산업·(주)건축사무소광장)과 피고인 1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최고 징역 10년형, 벌금 10억원이 구형된 바, 결과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가 본사가 소재한 서울시에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하체월이다. 유족들이 요청했던 추도 공간도 여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시는 사회적

재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유가족 대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전대미문의 현장은 기억 속에 사라지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 가치는 지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우리 가슴 속에 안전에 대한 다짐과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참사가 무한 반복되고 있다. 귀한 생명들이 떠나고 있다. 광주는 제주항공 사고로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시민들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언제까지 안전에 대한 구호만 되풀이할 것인가 답답해 한다. 전혀 바뀌지 않는 사회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 아이파크 유족들은 아파트가 분양되는 날까지 미려하게나마 감시자 역할을 자청했다. 지속적인 상시적으로 공감하고 치유할 공간이 필요하다.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3주기 추모식의 메시지는 이렇다. 기억해야 한다.

현장칼럼



장은미 광주 광산구 가족센터장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저소득 가정 중심으로 제한적이고 소극적이었던 가족 지원의 통합적 지원 및 서비스 등이 제도적인 면에서 개선되면서 전국의 가족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지역 사회 모든 가족을 중심으로 예방적·치료적 지원과 교육지원도 담고 있는 것이다.

2006년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으로 현재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으며, 모든 가족이 차별 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며 성평등 관점의 정책 기조(성평등)를 강화했다.

'세상모든가족'과 함께 라는 슬로건으로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결혼·가족에 대한 관점 변화, 1인 가구, 다문화가구의 급격한 증가, 이주민 정착 등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족은 기본 공동체로서 사회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작은 단위이며,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혼과 출산 자체는 사적인 영역이지만, 자녀 양육을 통해 사회·문화적 가치를 학습하고 전달하는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 가치를 가족 내 부모·자녀 관계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기능을 볼 때 가족은 국가의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기능이며 공적인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의 가족 개념이 혼인·혈연 중심에서 비혼 출산, 동거 등 가족 형성의 다양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법률혼·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등 제도와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족 구성, 출산을 해야 건강한 가족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 아직도 전통 가족의 신화에 빠져 있다. 가족 구성의 다양성 포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가족의 다양성, 사회통합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감수성이 길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가족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가족 내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 사회적 노력이 무엇

보다 절실히 요구돼야 한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가장장적인 성역할 문화는 가정 내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사회에도 만연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핵심 키워드인 '저출생'의 사회 문제를 어른들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지원 하는 제도가 옳은 방향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어느 작가의 기고 글에서 인용하자면 "오늘날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어린이들이 행복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이다. 어른들은 지금의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어린이들은 이 말에 공감하지 못 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소유물이 돼 과거처럼 마음껏 친구들과 뛰어다니며 놀 수 있는 자유가 사라져버렸기에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어린이가 행복하면 어른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 아이가 있어 행복해지는 세상이 아닐까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아닐까?"

이에 가족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정부의 가족정책 방향인 '세상모든가족'이 상호존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커지길 소망해 본다.

'세상모든가족'과 함께

독자투고

현재 우리 사회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지능화돼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침투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법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지만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발신번호 변경, 악성앱 설치 유도, 미끼문자 발송이 있다.

첫째 발신번호 변경은 발신번호를 기관의 대표번호 등으로 변경을 해 전화를 걸어 기관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됐다", "개인정보 유출됐다"라는 말로 상대를 속여 혼란

을 야기하고, 허위의 공무원증 및 구속영장 등의 사진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결국에는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또한, 최근에는 AI기술(딥페이크)을 활용해 지인의 목소리를 똑같이 모방해 피싱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법도 유행하고 있는데 영상채팅이나 메시지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해 녹화나 캡처를 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사실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요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보이스피싱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개인의 민감한 정보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평온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상한 메시지의 URL 링크는 접속하지 않기', '수상한 어플은 다운로드 하지 않기' 등 예방수칙을 생활화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용기·여수경찰서 경무과)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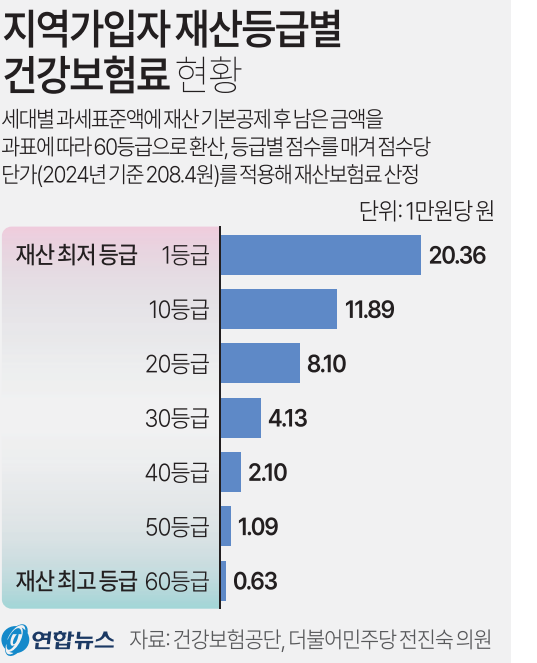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재산 적은데 더 낸다고?... 전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역진적'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가 역진적이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의실(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도 매기는 등 이원화된 부과 체계로 짜였다.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본 공제금액은 기존 5천만원에서 2024년 2월부터 1억원으로 올려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문제는 현행 등급제에서 등급별 재산보험료를 1만 원 단위로 금액을 환산하면 35원으로 재산 등급이 낮은, 즉 재산이 적은 세대가 더 많은 세대보다 지역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재산 최저 등급 1등급에서 1만원당 재산보험료는 2036원이지만 10등급은 11,89원, 20등급은 8.10원, 30등급은 4.13원, 40등급은 2.10원, 50등급은 1.09원, 최고등급인 60등급은 0.63원으로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나아가 재산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도모하려면 정률제 도입뿐 아니라 재산보험료 상한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10(가) 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